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담당
발 신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담 당	이 종 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권 순 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제 목	2018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 기념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집회: "HIV/AIDS 혐오를 멈춰라!"
발 송 일	2018년 12월 1일(토) 총 6매

2018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 기념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집회: "HIV/AIDS 혐오를 멈춰라!"

일시 : 2018년 12월 1일(토) 오후 2시 - 4시

장소 : 세종로공원

주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동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순 서]

● 사 회: 권순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여는 무대: 지보이스

● 발 언:

발언 1: "변하지 않은 사회의 인식과 에이즈 혐오" - 손문수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발언 2: "가짜뉴스, 혐오정치, 차별선동 규탄" - 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발언 3: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 - 김대희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언 4: "국립재활원 사태와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 조미경(장애여성공감)

● 중간 무대: 도맹(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쿤)

발언 5: "성소수자운동과 에이즈운동의 만남" - 캔디(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 6: "차별의 부당함,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7: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방법상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문제점”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발언 8: “HIV 감염인의 노동권”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 달는 무대: 소주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 선언문 공동 낭독

● 퍼포먼스 진행 : HIV/AIDS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분쇄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약 3시 30분 경)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발족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감염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주목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로 인권의 담론을 확장하며, 에이즈에 덧씌워진 낙인과 혐오를 지우기 위해 활동하는 HIV 감염인과 인권활동가들의 연대체입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러브포원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 /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 장애여성공감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PL모임 ‘가진사람들’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 ‘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3.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기념하며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집회 “HIV/AIDS 혐오를 멈춰라!”를 개최합니다.

4.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범람하는 이 때, 귀사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동선언문, 발언문
끝.

하나. 정부에 요구한다

법에 명시된 감염인의 권리가 왜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않는가
이 간극을 인식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감염인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없다
U=U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인식 개선에 나서라

콘돔만을 강조하던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사전예방약의 접근성을 높여 에이즈 공포를 끝내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악성조항 폐지하라
예방 효과 없는 전파매개금지조항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예방책을 마련하라

공중보건정책에 에이즈공포를 이용하지 말라
감염인 인권 보장과 국민 건강권 보호는 분리될 수 없다

혐오와 차별이 범람하는 시대, 정부의 역할을 묻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에이즈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거부감을 해소할 키를 쥐고 있다. 에이즈 분야의 가장 큰 혁신인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성명이 바로 그것이다.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 수치가 낮아진 감염인은 타인에게 전파력을 상실한다는 이 성명은 작년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공신력 있는 학회와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이제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 왜 정부는 침묵하는가? 왜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가? 이는 단지 공중보건 상 성매개 감염병을 더 쉽게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침묵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감염취약군 집단을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의 지원과 함께 예방에 그 어떤 실효성도 없는 사후적 조치인 전파매개행위금지라는 조항을 두어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감염인 개인의 행동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감염 사실을 알고 치료를 받아 전파력이 없는 감염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악성 조항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중되는 국민의 불안에 대해 국가는 예방조치를 법에 명시했다고 면피하며 감염인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도록 유도한다.

각자의 삶이 처한 조건과 맥락이 다름에도 그에 대한 고려 없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신의 삶을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에 놓인 이들에게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치료받고 싶어도 의료진의 진료거부를 당해야 하는 삶,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편견으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일터에서 쫓겨나야 하는 삶, 자신이 배척되고 고립될까 두려워 감염 사실을 드러낼 수 없는 삶.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거짓말해야 하는 사회는 누구에게도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감염인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그가 동료 시

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감정적 판단을 잣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료 시민을 모욕하는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감염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심각성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에이즈는 죽을병이 아니다. 이제 만성질환화되어 건강히 살 수 있는 질병인데 어쩌서 HIV를 가졌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해소, 올바르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비극이 사라진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감염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근거로 발전하는 대신 혐오세력이 소수자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막말의 근거가 된다.

정부는 지금 당장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엄벌할 장치를 만들라.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를 메울 방안들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

들. 언론에 요구한다

hiv/aids는 단순히 감염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인권과 소수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언론은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하며

대중의 비합리적인 공포와 부당한 편견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누구라도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구조적인 차별을 지적하는 대신 정체성을 비난하며 혐오를 정당화하지 말라

왜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고 간주되는지

그 부당한 구조와 맥락을 읽는 시각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라

무책임한 일부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감염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지만 선정적으로 보도할 뿐, 몸에 바이러스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약자를 생산하는 구조가 어쩌서 변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보수 세력은 소수자 인권이 증진되고 다양성이 가시화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을 저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hiv를 가지고 살아가는 감염인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도 그에 대한 요구를 무력화한다. 그 틈을 비집고 감염인을 위하는 척, 성소수자를 위하는 척 교묘히 혐오문법이 끼어들고 그것을 언론은 용인하거나 더 나아가 조장하기까지 한다.

외부 기고는 본지와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한 줄로 사회에서 차별받고 편견 속에 고통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언론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 HIV감염 사실과 상관없이 없는 범죄를 연결시켜 부정적인 편견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각성하라. 남성 동성애자를 향문으로, 바이러스로 묘사하지 말라. 병을 묘사하는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들로 감염인을 서술하지 말라. 개인의 감정적 판단에 근거해 부정적인 편견과 혐오감을 부추기지

말라.

무엇이 감염인을, 소수자를 동료 시민으로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모멸적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유도하려는 감정은 무엇인가? 부당한 현실을 바꿔내는 분노인가? 개인의 정체성을 비난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며 혐오감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가? 동성애자라면, 감염인이라면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마땅하다고 설마 생각하는 것인가? 구조적인 차별을 지적하는 대신 정체성을 비난하며 혐오를 정당화하지 말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확산시키고 감염인 혐오를 조장하는 글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눈이 없는 무능한 언론이라는 뜻이다. hiv/aids 이슈는 간단하지 않다. 전문적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적으로 여러 겹의 낙인이 얽혀 있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장이다. 이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딱딱한 사실이 아닌,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밑그림이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에 대한 믿음과 그 청사진일 것이다.

부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과 태도에 대해 깨닫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내길 바란다.

셋. 시민 사회에 요청한다

아파도 되는 사람, 모욕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혐오에 맞서자

소수자 집단의 취약성이 제도적 차별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같이 투쟁하자

쉽게 답할 수 없는 현실의 고민을 삶을 바꾸는 질문으로 만들자
함께 연대하며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어나가자

2018년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권은 오직 그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에 근거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이 아닐 때 어떠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경험했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인권을 우리 사회가 수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게 되었다. 인권 증진을 향한 요구는 소수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선동 속에서, 아파도 진료받지 못하고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구체적인 현실의 차별들을 변화시키라는 요구로서, 지금 새로운 삶과 세상을 상상할 질문으로서 존재한다.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었을 뿐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감염인 집단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욕하면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떠들었던 이들 대신 스스로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누군가의 귀와 마음에 가 닿아야만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공허한 외침으로 남겨두는 무관심 대신 우리 함께 고민과 삶을 나누며 교차점을 찾아내자.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주변화된 삶, 탈락한 삶이기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에서 배제되던 시대를 끝내자. 아파도 되는 사람, 모욕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과학의 발달로 에이즈는 이제 더는 두려운 질병이 아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입장을 가지고 혐오에 맞서자. 이제 혐오와 낙인을 끝장내자!

넷. 우리는 선언한다.

모두의 평등을 노래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을 더욱더 꽃피우기 위해,
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해,
HIV/AIDS 인권운동을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드는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언한다.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다. 모두의 평등을 노래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을 더욱더 꽃피우기 위해, 인권선언 70주년의 의미를 새기고 지금 이 땅에서 필요한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누구 한명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이다. 혐오의 시대는 불평등을 자양분 삼아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주변부에 밀려난 우리들은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동료되기를 실천할 것이다. 우리가 일구는 작은 인권의 땅에 아프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정당한 몫을 빼앗긴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맞서는 대신 단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비난과 모욕을 감내하게 만드는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은 또 하나의 오늘, 인권의 의미를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것으로 만들 공동 선언문을 함께 낭독한다.

2018년 12월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문]

"변하지 않은 사회의 인식과 에이즈 혐오" - 손문수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매해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 / HIV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한국에서의 에이즈역사가 30년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HIV 감염인 주변에는 차별과 배제의 언행, 편견과 낙인의 시선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HIV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혐오 때문에 아픕니다.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관점과 시각이 결여된 상태로 에이즈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없어야 합니다.

올해 에이즈인권주간의 슬로건은 'HIGH FIVE(하이파이브)'입니다.

손을 높이 올려 마주치는 이 스킨십은 서로의 안녕을 묻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행동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HIV 감염인들과 비감염인들의, HIV 감염여부에 관계없는 진실된 만남과 소통을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서로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HIV/AIDS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감염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에이즈 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가짜뉴스, 혐오정치, 차별선동 규탄" - 김정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0대 의장 김정빈입니다.

저는 요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우스워집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는 당연히 팩트여야 하는데, 이제 팩트는 따로 방송시간을 할애해 체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뉴스에 가짜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며, 충분하고 옳은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전파는 공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하게끔 유도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짜뉴스가, 생명권이 연결되어있는 문제에 혐오를 씌워 사회적 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격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Hiv/aids 감염인과 성소수자를 겨냥해 수없이 가짜뉴스를 뿌립니다. “성소수자들의 문란한 성행위 때문에 Hiv/aids가 확산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치료비용을 부담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그들이 성소수자와 Hiv/aids 감염인을 어떻게 혐오하는지 명확히 드러냅니다. 성소수자들은 “성행위에 중독된 문란한 성중독자들”. Hiv/aids 감염인은 “문란한 성행위를 통해 벌 받은 사람들”이라 낙인찍는 것입니다.

이 낙인은 성소수자들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퍼뜨립니다. 사회적인 낙인이 공고한 분위기 속에서, 가짜뉴스의 공포로 인해 Hiv/aids 검사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게, 감염 직후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병에 걸렸다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검사를 기피하게 된다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감염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가짜뉴스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가 혐오를 뿌리로 삼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혐오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트리고, 정치인은 이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혐오세력에게 잘 보이려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고, 혐오를 조장하고, 부역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공포와 혐오가 질병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일까요?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공포와 혐오

의 정치는 단 한 번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더 이상 공포와 혐오가 승리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항합시다. 우리의 존엄과, 스스로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워 나갑시다.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QUV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국립재활원 사태와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1일, 자유한국당 등이 주최한 ‘청소년 에이즈 예방 캠페인’ 행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행사에서, 청소년들에게 공연을 마친 후 “청소년을 에이즈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일제히 90도 각도로 인사시키는 장면과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운동 활동가들에게 쏟아졌던 혐오의 눈빛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이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은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이나 입주를 반대하고, 인권조례에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며, 난민과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수많은 현장에서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방인이 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폭력과 인권침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이자 동료, 이웃이 아닌, 나와는 다른 존재라는 ‘타자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타자화 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고립, 차별은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이 또한 타자화 된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HIV/AIDS 감염인의 질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생산하는 가짜뉴스와 이를 조장하는 언론, 그리고 이것이 허용될 수 있게 만드는 세력들에게 강력히, 혐오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해 국립재활원은 HIV 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차별이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에이즈환자를 거부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조차 치료를 거부당하는 현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임에도 장차법 적용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로써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만큼 사회적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협소한 장애 범주와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애인독립생활운동은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문제이게 만드는 ‘사회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권리’임을 분명히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나누고 자신의 몸에 대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혐오세력들이 만든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혐오 세력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세상에서 언제 배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욱 ‘나와 다른 존재’ 만들고 배척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정상성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비정상성을 더 드러내고, 서로의 연대를 통해 의존하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이 시대와 더욱 불화하며 불구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서로 의존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문]

“성소수자운동과 에이즈운동의 만남” - 캔디(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_집행위원_ 캔디입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는 세계에이즈의 날, _우리의 목소리로는_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입니다. 이번 인권주간의 슬로건은 하이파이브입니다. HIV감염인이 주위에 있음을 인지하고 격려하며 스스럼 없이 다가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슬로건을 듣고, 정말 잘만든 슬로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하이파이브 로고가 들어간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고, 캠페인이나 행사들을 계속 공유했습니다. 그러다가 난 정말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변의 감염인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있나 고민해보았습니다. 트랜스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 트랜스젠더도 트랜스젠더와의 관계속에 당사자의 주변인이며 당사자와 다름없다 끊임없이 이야기 했는데 정작 저는 에이즈 운동에서 그래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 프레디머큐리의 삶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의 주변 감염인의 삶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무감각하고, 그냥 알아서 잘 살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성찰해보기도 했습니다.

성적소수자 커뮤니티에, 아니 성적소수자 운동에 어쩌면 HIV/AIDS는 매우 익숙한 것이기도 합니다. 무려 LGBT란 단어가 성적소수자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기 이전부터 에이즈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혐오와 동성애혐오는 그 뿌리를 따라 긴 시간 함께해왔습니다. 성적소수자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동성애와 에이즈라는 연결고리로 만들어지는 혐오에 대항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HIV/AIDS 이슈들에 함께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단체들 내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동성간의 성관계가 에이즈의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해 에이즈와 성적소수자를 분리해내려 애쓰기도 하며, 감염인 성적소수자와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진행된 HIV/AIDS에 대한 20대~30대 HIV 감염인의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이 에이즈 예방 및 감염인을 위한 인권 운동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83%에 달했습니다. 감염보다 에이즈에 대한 비난이 더 힘들다고 답한 이들도 87.9%에 달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가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임이 상식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에이즈 인권주

간에도 거짓 선동기사와 혐오의 목소리는 감염인 인권의 외침을 변질시키고, 날조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소수자의 존엄 또한 짓밟고 더러운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에이즈 혐오는 성적소수자 혐오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 역시 에이즈에 대한 낙인을 강화합니다. 성적소수자 운동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편견, 혐오를 지우는 일은 곧 감염인의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외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동합시다. 외칩시다. 따지고 항의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당연히 차별받아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지개 행동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에이즈에 대한 날조와 혐오가, 차별과 배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선두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